

벨리니 몽라쉴

Domaine Henri Boillot Puligny Montrachet



벨리니 몽라쉴의 지휘자

#앙리부와이오 #부르고뉴 #샤르도네 #화이트와인 #벨리니몽라쉴

브랜드 [도메 앙리 부와이오 \(Domaine Henri Boillot\)](#)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 [코뜨 드 본](#) > 벨리니몽라쉴품종 [샤르도네 \(Chardonnay\)](#)

등급 AOC Puligny Montrachet (Villages)

종류 화이트 와인 용량 750ml

당도 드라이 알코올 %



품종블렌딩

[샤르도네 \(Chardonnay\)](#) 100%

테루아

벨리니 몽라쉴의 레 정세네흐 (Les Enseign res), 레 샤름므 (Les Charmes), 레 우이예흐 (Les Houill res) 리유-디 (Lieux-dits)에서 재배한 샤르도네 품종을 블렌딩하여 만든 와인이다. 재식밀도는 헥타르당 10,000그루이며 생산량은 헥타르당 50헥토리터이다. 토양은 점토질과 석회암질이다.



재배

간섭을 최소화 하는 루뜨 헤조네(Lutte raisonne) 방식의 포도 재배를 도입한 선구자로 온전한 토양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 또한 유기농 방식으로 포도밭을 일구며 어떠한 화학적인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수확량이 적고 품질이 높은 포도를 생산해낸다.

양조

양조 후 숙성시에 바또나주는 거치지 않으며 전체의 25%를 350리터 용량의 새 오크통에서 숙성을 거쳤으며 나머지는 1년 혹은 2년 사용 오크에서 숙성 후 출시한다.

노트

밝은 금색 빛을 띠며 주변부에 약간의 초록빛을 띤다. 스모키한 풍미와 함께 흰색 꽃, 그리고 순수함과 섬세함이 코에서 느껴진다. 힘이 강한 와인으로 빌라주 아펠라씨옹의 와인이라고 믿기 힘들정도의 집중도를 보여준다. 동시에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좋은 미네랄리티가 느껴진다.

※ 와인의 빈티지와 블렌딩, 라벨 디자인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ttp://www.vinocus.co.kr/>
02-454-0750